

지난 1년

환경안전원에서는...

한현정

1. 일본 주요 대학 및 연구소 방문

환경안전원에서는 일본의 환경안전관리 실태를 견학하고 서로의 선진시스템을 상호교류하고자 2008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본의 주요 대학 및 연구소 4곳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동안 서울대학교와 일본 주요 기관의 실험실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도있는 견학과 발표, 토의를 통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최대한 얻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비록 돌아서며 여건상 당초 계획했던 바를 모두 이루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실험실 안전 분야에서 우리 서울대학교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 방문 기관 : 동경대 카시와캠퍼스, 경도대학, 오사카대학, 리켄연구소

2. 개원 25주년 기념행사

1982년 6월 7일 환경안전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국내 대학의 환경안전관리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온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이 개원 25주년을 맞았다. 이에 전임원장님을 비롯하여 70여 명의 학내외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2007년 6월 8일 개원 2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2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한 이 자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어울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3. 부속시설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우수기관 선정기념 미술작품 구매

환경안전원이 2005년에 이어 “2007년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평가 우수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되었다. 이는 환경안전원이 서울대학교의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정학 원장님의 아이디어로 우수기관 선정 상금으로 기념 미술작품을 구매하였다. 미술대학의 졸업미전에서 안전원 식구들이 직접 고른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환경안전원 전체가 화사한 빛을 얻었다.



사이:숲 - 송민정



Machine Plant II - 조슬기

4. 실험실 안전담당자 지정

서울대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각 기관이 안전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2007년 12월 이공계(미대 포함) 대학 및 연구소 26개 기관 총괄담당자 1인과 각 학부(과) 담당자 1인, 총 112명의 “실험실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였다.

2008년 2월 1일 “제 1회 실험실 안전담당자 정기모임”이 개최되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전 교직원이 안전 지킴이가 되어 서울대학교의 실험실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5. 환경안전원 업무전산시스템 도입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실험실 안전관리, 환경안전교육, 방사선안전관리, 실험폐수관리 등 환경안전원 업무 전반에 걸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데이터의 수합과 통계작업을 수월하게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 주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여 좀 더 발전된 업무 처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6. 환경안전교육 연건캠퍼스 출장 교육

연건캠퍼스의 의과대, 치과대, 보건대학원 학생 및 연구원들의 환경 안전교육 편의를 위하여 2008년도 정기교육부터 연건캠퍼스로 환경 안전교육 출장 교육이 이뤄지게 되었다. 2008년 2월 21, 22일 양일에 걸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연건캠퍼스 출장 교육은 3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불타오르는 학구열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김정오 교수님의 "사고 심리학" 강의

7. 환경안전교육 참가자에게 보안경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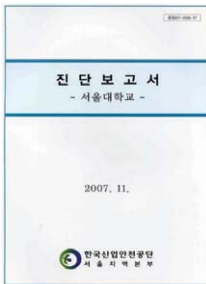
2008년도 2월 환경안전교육에서는 교육 참가자들에게 보안경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보안경은 실험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로서 학생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환경안전교육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실험실 연구원 모두가 보호 장비를 구비하여 안전한 실험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8. 실험실 공기오염도 조사

연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쾌적한 실험실 환경 구축을 위해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실험실 공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중앙도서관과 이공계(미대 포함) 137개 실험실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HCHO)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의 3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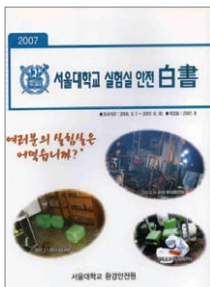


9.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요청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주관 서울대학교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었다. 2007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연구실 취급설비에 대한 운영실태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설비요소별 위험요인을 점검하였다. 진단 결과 보고서는 각 진단항목별로 세부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진과 함께 수록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실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0. 『2007 서울대학교 실험실 안전 백서』 발간



2007년도 서울대학교 1,347개 실험실의 안전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 정리한 『2007 서울대학교 실험실 안전 백서』를 발간하여 전 대학 및 학부(과)사무실, 교수, 해당 실험실, 환경안전교육 참석자에게 배부하였다. 실험실의 적나라한 모습을 담은 2007년 백서는 그 래프와 사진을 활용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2006년과 실험실의 안전실태가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비교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1. 국제워크숍 개최

우리나라 연구실의 실험안전 관리를 체계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도 연구실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2007년 11월 23일 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일본 및 대만의 연구실 안전 관리 현황을 들어보고 정밀안전진단과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료화 도입에 대해 국내·외 안전관리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안전에 관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12. 자연대 실험 폐수 폭발사고 “사고처리반” 출동

2007년 2월 발생한 자연대 실험폐수 저장용기 폭발사고에서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환경안전원 직원들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사고현장을 수습하였다. 사고처리반은 흡착지를 이용하여 폭발한 폐수를 제거하고 현관과 복도문을 개방하여 실내공기를 환기하였으며 폭발한 폐수저장용기는 환경안전원으로 수거하였다.

13. 연구실 안전실습관 건립 계획

실험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실험실 연구자들이 직접 체험하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 실습”, “열·연기 탈출 실습”, “심폐소생술 실습”, “환경분석 및 표준모델 실험실”을 갖춘 연구실 안전실습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살아있는 환경안전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14. 태안 기름유출사고 방제 작업

전국민의 눈물이었던 태안 기름유출사고 방제 작업에 환경과 안전 지킴이를 자처하는 환경안전원이 참여하였다. 2007년 12월 15일 대학본부에서 방제장비와 점심, 차량을 지원하였고 환경안전원에서는 준비한 방제복과 방제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염된 모래밭과 갯벌의 기름을 흡착포와 걸레로 제거하였다. 더럽혀진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끊이지 않는 발길에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다.

